

#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, 전산 관리로 빈틈없이 운영

- 행복이음 ‘아동보호서비스’ 기능 개선 통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 아동  
선제적 발굴 및 후견선임 절차 지원 강화 -

【국정과제 87】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·육아 환경 조성 ③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12일(화)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 내 ‘아동보호서비스\*’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.

\* 시·군·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상담접수, 조사·사정, 보호계획, 보호결정,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보호절차 전반을 등록하여 관리

보호대상아동 중 부모가 없거나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·금융 서비스 이용, 학적 관리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은 필수적이다.

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이에 행복이음 ‘아동보호서비스’ 아동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, 후견인 정보 및 유형,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.

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유형(시설보호, 가정위탁보호)에 따른 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한다.

현행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기 관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</li> <li>• 지자체 간 사례이관 시 후견인 정보 공유 단절</li> <li>• 후견 선임이 필요한 아동 파악의 어려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별 아동의 후견 선임 이력의 시스템 관리</li> <li>• 사례관리 이관 시 후견 업무 연속성 확보</li> <li>• 보호유형(시설, 가정위탁)에 따른 후견 선임 필요 아동 발굴 및 선임 절차 지원 용이</li> </ul>

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이 아동보호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시·도 및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스템 개선 배경, 후견인 정보 기록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.

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“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하여 후견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” 라며 “앞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**<붙임>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정보 시스템(행복이음) 개선**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연 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신연식 (044-202-3419)
			주무관	유재덕 (044-202-3418)



□ **개선 배경**

-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, 후견선임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 현황의 체계적 관리 필요
- 개별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 개선

□ **추진 경과**
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의 통한 시스템 개선 범위 확정(26.1~2월)
- 보호대상아동 미성년후견인 현황 시스템 일괄 반영 및 시범 운영(~4월)
- 지자체 설명회(4월 5주), 시스템 개통(5월 1주)

□ **주요 개선 기능**

-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(행복이음)의 “아동정보”에 후견인 현황 및 후견인 정보 관리 기능 신설
  - 후견인 선임 여부(불필요, 선임(지정), 미선임, 종료), 미선임 사유
  - 후견인 유형(시설장, 가정위탁 보호자, 친인척, 지자체장, 공공후견인, 임시후견인 등)
  - 후견인 정보(선임 및 종료 일자, 후견감독인)